

# “선진복지 이끄는 ‘싱크탱크’ 책임 다할 것”

취임 1년 맞은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빛고을건강타운·효령노인타운·빛고을50+센터 위탁 운영  
돌봄·인권 중심 장애인·외국인·요양원 등 12개 분야 연구

“광주다운 복지, 선진화된 복지 정책을 이끄는 ‘싱크 탱크’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현장을 담아낸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만수(64) 광주복지연구원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광주복지연구원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빛고을 50+센터를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뿌리로, 지난해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까지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사가 퇴임한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표 자리에 앉는 데 김 원장은 책임감도 컸다고 한다.

김 원장은 “지난 1년간은 리더십 공백으로 흐트러져 있던 연구원의 중심을 잡는 데 힘을 쏟았다”며 “새로 출범한 연구원의 뼈대를 잡고 앞으로의 미션·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고 돌아봤다.

올해 광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등 성과도 있었다. 취임 당시 경영평가 결과 B등급에 머물러 있었으나 경영평가 지표

별 대응반을 구성하고 꾸준한 코칭, 컨설팅을 거치는 등 1년 만에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김 원장은 “경영평가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B등급일 때 100% 인센티브만 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200%까지도 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뿌듯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어 보람차다”고 웃었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정책 연구를 시작해 노인, 1인가구, 장애인, 지역 복지,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50여편의 연구를 진행했다. ‘광주시 복지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방안’,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광주복지플랫폼 구축, 감정노동지원센터 설립 등 복지정책의 뿌리를 만들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현재도 장애인과 외국인, 장기요양원 등 12개 분야에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지역사회보장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복지타운 운영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보통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



우가 많으나, 빛고을·효령 두 복지타운은 모든 노인들이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연구원에서 나온 정책 연구 결과를 두 복지타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떤 시도에서도 볼 수 없던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으로서 자부심이 크죠. 최근에는 광산구 또는 서구 지역에 복지타운 1곳을 신설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밀한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복지타운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김 원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돌봄복지’와 ‘인권’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들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관련 연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광주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서울대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4년 동안 동신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소장, 보건복지대학 학장, 사회복지사사업단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역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 낙석위험구간 안전 점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광주시 산악연맹과 합동으로 낙석위험구간 안전점검 차원에서 지난 17일 새인봉, 운소봉 등 암장 1개소를 점검했다. <무등산국립공원공단 제공>

## 영산강·낙동강서 국내 미기록 세균 발견

101종 중 51종, 다당류·단백질 분해효소 생산 활용 기대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처음 발견된 세균 101종이 발굴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원핵생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세균 101종을 발굴하고, 이들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산강과 낙동강을 조사해 각각 42종과 59종을 찾아냈다.

이번에 발굴된 세균을 분류하면 프로테오박테리아문 59종, 액티노박테리아문 25종, 박테로이데테스문 9종, 페미큐티스문 6종, 아키토박테리아문 1종, 베루코마이코로비아문 1종 등이다.

아키토박테리아문과 베루코마이코로비아문 세

균은 현재까지 국가생물종 목록에 오른 종이 3종과 6종에 그쳐 이번에 해당 문에 속하는 세균이 새로 발견된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원관의 설명이다.

발굴된 세균 중 다수의 세균(51종)이 다당류·단백질 분해효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장성군 황룡면 영산강 지류에서 발견된 ‘미트스아리아 키도사나타비다’ 종은 다당류·단백질 분해효소를 7종이나 생산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리산국립공원서 백년가약을 맺다

취약계층 신혼부부 생태탐방원서 ‘숲 속 결혼식’ 진행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지난 17일 가정형편 등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식을 미뤘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을 진행했다.

숲 속 결혼식에선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야외무대, 예복, 결혼 사진, 꽃다발, 답례품, 행사지원 등이 제공됐다.

생태탐방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다고

밝혔다. 이날 결혼을 한 신랑은 “이번 숲 속 결혼식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며 “결혼식을 제공해주신 지리산생태탐방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했다.

이관욱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장은 “대자연 지리산 속에서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 신혼부부에게 백년가약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실신 50대 구한 IoT 스마트 돌봄 서비스

광주사회서비스원, 1인가구 774세대 설치 모니터링 성과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실신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응급조치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57)씨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광산구중합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고위험군으로 지난 6일 집안에서 실신해 쓰러졌다. 센터는 집 안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A씨의 활동량을 모니터링해 왔는데, 활동량이 없

어진 것을 발견한 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다.

A씨는 정신질환과 함께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1인 가구인 만큼 취약가구인데도 제도권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거주하던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전입하면서 구청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도 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는 일

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총 774세대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 안에 IoT 센서를 설치해 활동량,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이상 진단 및 예측 시스템으로 선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복잡해지고 코로나19 등 외부 위험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IoT, AI 등 스마트 기술과 따뜻한 돌봄을 융·복합해 시민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올려요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과학골든벨’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

북구는 10월 22일 개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및 국립광주과학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북구의 풍부한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학습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북구 과학골든벨 대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대회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립광주과학관 정문에서 열린다. 참가는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

생과 학부모가 가능하며, 총 100팀(학생1명, 학부모1명)을 10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북구청 및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062-410-8483)로 하면 된다.

출제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미래 기술 등 생활과학 상식이며, 골든벨을 포함한 상위 6개 팀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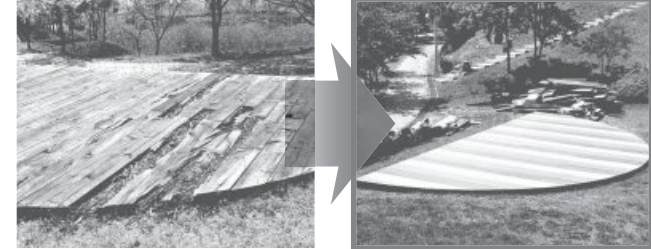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